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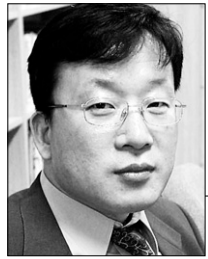
지금 봉은사 문제를 놓고 말들이 많다. 본질을 호도하고 싶은 사람이 불교계나 정치계에 꽤 많은 모양인데, 핵심은 MB 정권의 불교탄압과 불교의 정치적 독립이다. 어찌 정교분리가 대원칙이자 상식이 된 20세기도 넘어선 21세기에 중세적 퇴행이 이루어졌는가.

1차적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 MB정권은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활짝 열어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였고, 22조의 전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강물을 썩히고 흉수 등 재앙이 우려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비판과 저항이 필연적인데 이를 철저히 봉쇄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그 비판이 불교계에서도 전개되자 스님을 좌파로 매도하고 스님의 말씀에 재갈을 물리려 한 것이다. 당사자가 사퇴함은 물론, 정부는 이 기회에 모든 종교 및 불교문화계에 지원하는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기에 권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치를 마련해야 하며, 종교 탄압이나 간섭을 고문처럼 근대 국가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불교제도 이점에 자성할 점이 많다. 필자 보고 현재 한국 불교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뽑으려면, 정치적 종속과 사회적 실권의 결여다. 그 찬란하던 인도불교가 사라진 것도 바로 이 점에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불교 또한 50년 안에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음력 사월 초파일 앞두고 모든 불자와 사찰은 참 분주하다. 부처님오신날이기 때문이란단다. 왜 그렇게 바빠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인가. 그 날은 언제인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는 한 것인가. 모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믿고 또한 믿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작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보다 부처님이 나 자신에게 은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오셨다고들 하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부처님 당신의 탄생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면 아무래도 나 자신이 부처님의 존재를 믿고 그 가르침을 받아 들일 때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처님은 언제 오신 날이어야 하고 어디에나 오신 곳이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오신 존재여야 한다. 그 날을 사월 초파일로 설정한 것은 점으로 의미가 있다. 1년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이고, 한 달 가운데 가장 기운이 왕성하고 좋은 날이다. 적어도 우리에게 부처님은 그런 길상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분으로 투영되



불자 세상보기

이도호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불교, 이제 홀로 서야 할 때다

사라질 수도 있다.

미국의 힘을 업고 개신교는 짧은 시간에 기독교 세력을 형성하였다. 반면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불교는 개신교에 차츰 밀리다가 10·27 법난까지 당하고, 열혈 개신교도 대통령을 맞아 술한 수모를 당하다니 이제 정부측 인사가 종단의 일을 좌지우시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원효와 의상, 지눌을 낳고 석굴암과 불국사를 조성하고 간화선의 전통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한국불교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문제는 종단에 있다. 종단은 정권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정권이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 이유는 돈과 권력이자. 정권은 신도들의 지지가 필요하였고, 종단은 정권이 던져주는 '떡고물'과 힘을

원하였다. 그 때문에 군횡발에 짓밟히는 수모를 겪고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였고 20년이나 지나서야 진상규명에 나섰다. 이제 이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리 하려면 종단 개혁이 우선이다. 정권에 맞서서 불교의 가치와 조계종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종교적 권리와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종단을 구성하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며, 종단과 절에서 들고 나는 모든 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스님들도 탁발과 무소유 정신을 다시 확고히 해야 한다. 석가모니께서는 스님들에게 동냥을 하여 빌어먹을 것이요 소유할 것 은 발우와 가사 세 벌이며 이 또한 다른 승려에게 넘겨주라 일했으며, 스스로 매일 탁

발을 다니셨다. 탁발은 나의 교만과 아집을 버리는 길이요, 무소유를 실천하는 삶이자, 보시하는 이의 복덕을 길러주는 공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후 사람에도 시장과 자본의 유령이 깊이 스며들었다. 수십억 원의 돈이 집집에 넘쳐나 대형불사를 못하여 안달이고, 주지스님이 땅장사와 사찰 특산품 장사꾼으로 전락한 절도 많다. 스님이 열불보다 잣밭에 관심을 갖는다면, 절은 더 이상 절이 아니다.

유머거사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고 했다. 계승에 "저 아름다운 연꽃이 향기 육연한 높은 언덕에 피지 않는 것과 같이 반야의 바다를 완전히 갖추었어도 열반의 성에 머무르지 않으며,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 무량한 겁 동안 온갖 번뇌를 버리지 않고 세간을 구제할 뒤에 열반을 얻는다" 했다. 내가 깨달아 부처가 되었어도 중생을 구제하고서야 진정 부처가 된다는 말이다.

지금 무진장의 고통 속에 있는 중생과 생명들을 외면하고 절 안에만 머무는 때, 그 불교는 이미 죽은 종교요, 그 스님은 부처 되기를 멈춘 한낱 직업인에 지나지 않는다. 어디에 있던 주인이 되라 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정부나 문종의 눈치를 살피는데 만족할 것인가. No라고 말해야 할 때 주저하는 순간 주인은 노예가 된다.

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일찍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부처님의 탄생에 내지 강탄케라 불리는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삼계개고(三界皆苦) 오당안지(吾當安之)가 그것이다. 중생 모두가 세상에 나는 까닭은 부처님이 오신 뜻과 더불어 바가 없다는 자각을 통해서 중생 각자가 세속을 초월한 자신의 존귀성을 갈파한 말임을 보여준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은 우주의 중생이 윤회하는 육도세계를 초월한 존재라는 종교적인 믿음과 함께 그 초월을 획득한 자각임을 나타낸 주체선언이기도 하다.

이야말로 부처님의 생명이 일체중생의 생명이고 더불어 자신의 생명임을 자각하라는 의미이다. 이 도리를 자각하는 참나더 이상 일체중생의 고통이 중생들만의 고통이 아니다. 중생의 고통은 부처님의 고통이고 또한 자신의 고통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각은 중생에 대한 자각이고 부처에 대한 자각이며, 부처에 대한 자각은 중생에 대한 자각이고 자신에 대한 자각이며, 중생에 대한 자각은 자신에 대한 자각이고 부처에 대한 자각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깨침은 부처와 중생에 대한 깨침이고 부처와 중생에 대한 깨침은 자신에 대한 깨침이다. 그것을 자각하는 날이야말로 자신의 발보리심으로서 진정 부처님오신날이 아니겠는가.

사설

대법원의 강의석 판결을 환영한다

종교재단이 세운 학교일지라도 종교교육을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대광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시위를 한 이유로 퇴학당한 강 의석씨가 대광고등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교계 학교가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 교양 수준을 넘어선 특정종교 교육을 할 때에는 허용 한도가 있다"고 판결하고, △종교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 △충분한 사전 설명과 학생들의 동의 여부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기준에 비해 대광고는 교육부 고시와 달리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았고,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볼 때 옹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많은 개신교회 사립학교에서 오래도록 관행으로 굳어져 행해지고 있는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제어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판결이 대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사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공공성을 띤 기관에서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삼아 종교편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감독청의 책임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가 밝혔듯 대광고는 종교과목을 대체할 과목을 개설

하지 않았고, 특정종교의 종교교육을 하며 학생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관리·감독청이 교육부 고시를 지키도록 감독만 했어도 오래도록 학생들이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당하는 피해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연맹의 사무국장이 "학교 정원 전부를 지원자로 채우면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명 전면적인 고교 지원제가 도입된다 해도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여럿이다. 따라서 그 학교를 지원했다고 해서 특정한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교교육이라고 이름붙인 만큼 학생들을 특정종교의 신자로 만드는 것은 종교교육이 아니라 선교행위다. 종교기관이 학교를 설립했다고 해서 학생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일임에도 정원을 지원자로 채우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여러 종교와 종교 현상에 대한 이해 등 종교교육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공공의 자산이다. 정부 예산도 투입된다. 따라서 특정종교의 교리 기준을 참고삼아 종교편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감독청의 책임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가 밝혔듯 대광고는 종교과목을 대체할 과목을 개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Modern Buddhism,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갈림

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나

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처님의 탄생의 월일과 출가의 월일과 깨침의 월일은 모두 좋은 달과 좋은 날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모습은 언제나 좋은 시운과 좋은 장소를 택하여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이상 좋은 날이 없고 더 이상 좋은 곳이 없으며 더 이상 좋은 운수일 수가 없다. 늘상 우리에게 부처님은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그렇지 못한 출생을 지니고 살아가는 중생의 입장에서서는 머나먼 동경의 대상일 뿐이다. 정작 자신은 부처님으로부터 아득히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아예 그런 모습으로 홀

내 내거나 닮아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자각지심은 스스로 자신을 중생 속에 가두어버리고 부처가 되기를 일부러 부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자신 스스로가 일찍이 부처님이 개척해 놓은 보편적인 가르침의 길을 애써 모르는 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반성해볼 일이다.

이에 사월 초파일은 오히려 부처님의 완벽한 탄생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출생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된다. 그것이야말로 정작 부처님오신날을 설정하는데 있어 애써 좋은 월일과 좋은 곳과 좋은 의미에 비유한 뜻에 한걸음 다가가는 길이다. 부처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장척사
주 지: 법민 (속명: 김수중)
주 소: 경북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
• 사찰명: 법혜사
주 지: 법원 (속명: 장운경)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533-5호
• 사찰명: 신홍암
주 지: 보선 (속명: 이성환)
주 소: 충남 보령시 청리면 장산리 115번지
• 사찰명: 선광사
주 지: 도봉 (속명: 황민국)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98-16
• 사찰명: 청룡사
주 지: 일도
주 소: 경북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
• 사찰명: 원광사
주 지: 선진 (속명: 김선진)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18

- 사찰명: 명성암
주 지: 지정 (속명: 박명규)
주 소: 충남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 415-1
• 사찰명: 동광사
주 지: 해암 (속명: 정순자)
주 소: 인천시 남동구 구월4동 1240-8
• 사찰명: 지심사
주 지: 지암 (속명: 김철회)
주 소: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562-10번지
• 사찰명: 해원사
주 지: 혜지 (속명: 박은주)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17-21
• 사찰명: 법혜사
주 지: 해안 (속명: 김명리)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533-5호
• 사찰명: 수련사
주 지: 경진 (속명: 이미화)
주 소: 전남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 150-1번지

위 사찰과 위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8일

한국불교원광종 총무원장 법하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팔꿈치 통증·관절통증·허리통증·어깨·목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크림이 항상 통증을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골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걸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뻥뻥이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케어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를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mlx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7일만 뒤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화뿔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많으나 이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치아가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